

# KOCHAM

## Economic Briefing

Korean Chamber of Commerce  
and Industry in USA, Inc

2014년 6월 26일(목)

### 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- 1) 미 실업수당 청구건수, 전주대비 2천건 감소
- 2) 미 5월 중 개인소비, 예상하회
- 3) FRB, 대형은행 '스트레스테스트' 기준 강화 경고

### 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- 1) 중국, 외환예금금리 자율화 상하이 전역으로 확대
- 2) 글로벌 헤지펀드 3조달러 돌파, 사상 최대 규모 기록
- 3) 외국인직접투자(FDI) 유입, 개도국 위주에서 선진국으로 증가세

### 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- 1) 알코아, 항공기 부품업체 퍼스릭슨 인수 타결 임박
- 2) 업계 최고 '철통보안' 페이팔도 보안결함

## 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### 1) 미 실업수당 청구건수, 전주대비 2천건 감소

- 지난 26일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전주대비 2천건 감소한 31만2천건을 기록했다고 발표
  - 이는 미미한 감소세지만 미 고용 시장이 개선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
-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미국 경기 회복에 힘입어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으며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더 감소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

### 2) 미 5월 중 개인소비, 예상하회

- 지난 26일 미 상무부는 5월 중 개인소비지수가 전월 대비 0.2% 상승했다고 발표, 하지만 이는 전문가 전망치인 0.4%를 하회하는 결과
-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개인소비가 저축 증가로 예상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분석
  - 지난달 개인소득은 5개월 연속 증가, 전월대비 0.4% 증가해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으며 전월 증가폭인 0.3%를 상회
  - 저축률은 4.8%를 기록해 전달의 4.5%보다 늘어나며 9개월 최고치를 기록

### 3) FRB, 대형은행 '스트레스 테스트' 기준 강화 경고

- o 지난 25일 미연준(FRB)은 은행들의 금융위기 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'스트레스 테스트'의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경고
  - 이는 대형은행들이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위험관리 고삐를 다시 풀고 있다는 지적 속에 나온 결과
  - 또한, 여러 은행에 걸쳐 있는 익스포저(위험노출액)와 여기서 비롯된 잠재적 위험이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칠 충격을 세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이유
- o FRB 타룰로 이사는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은 매우 혹독하지만 은행들이 최소한의 자본계획을 충족시킬 수 있게 하기엔 충분치 않다며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위험관리 및 자본계획 기준은 FRB의 종합 감독 프로그램에 통합될 것이라고 언급 한 바 있음
- o 한편, 올해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미국의 씨티그룹과 HSBC,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(RBS), 산탄데르의 미국 법인 등이 양적인 기준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음

## 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### 1) 중국, 외환예금금리 자율화 상하이 전역으로 확대

- 26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외환예금에 대한 금리 상한 폐지 지역을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시대에서 상하이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보도
  - 인민은행은 이날 성명을 통해 소액 외환예금에 대한 금리 상한을 오는 27일부터 상하이 전역에 걸쳐 폐지한다고 발표
- 지난 3월 인민은행은 자유무역시범시대 내에서 3백만달러 미만의 외환예금에 한해 금리 상한을 폐지한 바 있으며, 이는 중국에서 외환예금 금리가 자유화된 첫 사례
- 한편,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자율화는 악성 부채와 수익성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중국 대형은행들에 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

### 2) 글로벌 헤지펀드 3조달러 돌파, 사상 최대 규모 기록

- 지난 25일 WSJ은 중국이 글로벌 헤지펀드 시장 규모가 3조달러를 돌파했다고 보도
  - 시장정보업체 e베스트먼트는 헤지펀드 수익률이 좋지 못 한 상황에서 투자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
  - 5월에 투자수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으나, 지난 3~4월에는 2012년 4~5월 이후 처음으로 헤지펀드가 2개월 연속 투자 손실을 기록한 바 있음
- 전문가들은 헤지펀드 투자 증가의 요인으로 헤지펀드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이 바뀐 것을 지적, 헤지펀드들이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한 점이 기관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는 데 일조했다고 분석

- 한편, 한 시장전문업체는 기관투자자 투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2018년에는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총 자산 규모는 5조8천억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

### 3) 외국인직접투자(FDI) 유입, 개도국 위주에서 선진국으로 증가세

- 지난 24일 FT는 미국과 유럽의 경기회복으로 그동안 빠른 속도로 늘었던 개발도상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(FDI) 유입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
- UN은 현재까지 FDI 유입액은 선진국 보다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이 많았지만, 올해 선진국 유입 FDI 규모가 35%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는 한편 중국 등 개도국은 0.2% 감소할 것으로 전망
  - 미국과 유럽의 경기회복으로 기업들이 이 지역에 대한 장기 투자에 관심을 가지면서 선진국의 FDI 유입액이 2012년 크게 꺾인 이후 지난해 다시 9% 증가하며 회복세를 타고 있기 때문
- 또한, 2016년에는 선진국으로 유입되는 FDI 규모가 전체의 52%까지 증가해 현재 개도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역전될 것이라고 지적

## 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### 1) 알코아, 항공기 부품업체 퍼스릭슨 인수 타결 임박

- 26일 블룸버그통신은 알코아가 퍼스릭슨을 오크힐 캐피탈 파트너스에게 28억 5천만달러에 인수하는 합의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
  - 퍼스릭슨은 투자회사 오크힐캐피탈과 미국계 투자자문사인 노이버거 베르만 LLC에게 2007년에 16억달러에 인수된 바 있음

- 전문가들은 알코아의 퍼스틱슨 인수로 다운스트림, 즉 부가가치를 더한 제품의 제조업 사업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
  - 지난 4월 알코아는 대형 민간 항공기와 지역 항공사의 여객기 수요 증가로 항공우주 업계의 알루미늄 사용이 9%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
- 한편, 전문가들은 전세계 알루미늄 수요는 7% 증가할 것으로 전망

## 2) 업계 최고 '첼통보안'페이팔도 보안결함

- 지난 25일 FT는 세계 최대 전자결제 서비스업체로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자랑하는 페이팔의 이용자 인증 과정에서 보안상 결함이 발견됐다고 보도
  - 사이버 보안업체 듀오시큐리티가 페이팔의 2단계 인증을 건너뛰는 방법을 발견
  - FT는 온라인 뱅킹, 이메일, 소셜미디어 계정을 보호하기 위한 방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2단계 인증에서 결함이 발견된 사례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
- 페이팔은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업체 이베이의 결제 자회사로 전 세계에 걸쳐 이용자가 1억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
- 한편, 페이팔은 향후 몇 주 내 보안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예방 차원에서 고객들의 모바일 앱 계정 로그인 과정에서 2단계 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힘